

20세 남자 환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간문맥 고혈압에 병발한 식도 정맥류 및 혈관종 증례

경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¹정효진¹, *박수영¹

서론: 간경변증은 광범위한 간세포 괴사가 장기간 발생하여, 간 섬유화의 진행으로 인해 문맥압 고혈압이 발행하며,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정맥류 출혈 및 위장관 출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간문맥의 해면상 변화로 인해 문맥압 항진이 발생한 특발성 간문맥 항진증에 병발한 식도 정맥류, 복강내 다발성 혈관종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을 경험하여 증례발표를 하고자 한다. 본론: 20세 남자가 300ml의 토혈 주소로 내원하였다. 검사실 소견 상 자가면역간염 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복부 단층촬영 상 간의 간문맥 확장 및 혈전 및 비장종대 확인되었고, 위식도 정맥류 소견 및 간 우엽에 간내 간문맥단락으로 여겨지는 혈관 구조 및 복강 내 저명한 정맥 측부 순환 확인되었다. 간내 간문맥 좁아져 있으며 비장 정맥에 부분 혈전 보였다. 상장간막동맥, 하장간막동맥 주변 소장 장간막부터 하방 구불결장 장간막, 결장주변에 다수의 결절형 혈관종 소견을 보였다. 응급으로 시행한 상부내시경 소견 상 식도 정맥류 출혈 의심되어 식도정맥류결찰술 시행 후 경과 호전 되어 퇴원하였다. 약 16개월 뒤 흑색변을 주소로 응급실 재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 저명한 출혈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이전 영상 비교하여 간문맥혈전의 진행과 함께 결장주변 혈관종의 진행소견 확인되며 간문맥압 증가로 인한 위식도 정맥류 및 비장종대의 진행을 보였다. 상기 환자는 장간막 혈관종의 장 침범에 의한 출혈로 진단되었다.

고찰: 젊은 남자에게서 간의 문맥 확장 및 혈전에 의한 특발성 간문맥압 항진과 장간막 혈관종이 발생한 매우 드문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